

공도서관과 이동서관 등을 이용하는 독서인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불자들을 위한 사찰도서관은 최근 몇 년 사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운영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다. 교계에는 서울에서, 강남포교원, 부산 삼광사, 조계사, 부산 불교교육원, 일산 원각사, 여수 석천사 등 몇몇 사찰 중심으로 사찰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숫자나 운영실태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1년전부터 사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포교원(원장 성열)은 불자가 중심이던 1만권의 장서 신도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법회에 참석하는 자주부나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근에는 불자를 비롯 일반서적 베스트셀러도 출사에서 직접 구입해 대출과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그동안 삼광사내 금



◇ 사찰도서관에 가면 언제든 법사·선지식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1만여권의 불서가 소장돼 있는 서울 강남포교원의 도서관.

도심사찰 도서관 “턱없이 부족”

불교대학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던 사찰도서관 대를 위해 현재 공간을 확보하고, 조만간 2만여권이 넘는 불서와 일반서적들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도 사찰내에 3천권 규모 도서관을 마련, 경전공부를 하는 신도들에게 각 불교사건과 참고자료, 경전등의 불서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원의 경우는 불서대출과 더불어 TV에서 방영된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녹화, 대여해 주기도 한다. 조계사와 일산 원각사의 경우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입문서, 경전, 스님법문 등의 불서를 대출해 주고 있다. 이들 사찰도서관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대경이나 서화집 등 고가의 서적을 구비해 불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쏟아져 나오는 책 가운데 엄선된 양질의 불서를 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른 수행생활로 이끌어 주고 있다. 또한 불자들에게 사찰을 단순한 인권의 공간으로 뿐 아니라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사찰도서관은 일석삼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찰도서관이 대부분

조계사·강남포교원등 6곳뿐 시설확장·장서구비 '발등의 불' 교계 복지관과 연계운영도 '방편'

소규모인데다가, 신간의 지속적인 구비나 도서관의 체계화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대한 사찰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불자들의 문화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발맞춰 사찰도서관도 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년전까지만 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광명사의 금강정사와 사천왕사 사찰도서관의 경우 현재 책만 그대로 남아있을뿐 대출은 사실상 폐지됐다. 금강정사의 한 관계자는 “지역 사립 구립도서관이나, 이동서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대여해주고 있어, 장서보유에 한계가 있는 사찰도서관이 불자들의 의견과 도서관리의

◇ 사찰도서관 현황

도서관	장서수	연락처
강남포교원 도서관	1만권	(02)539-2631
조계사 도서관	5천권	(02)730-6261
부산불교교육원	3천권	(051)466-4079
여수 석천사	3천권	(0662)666-1770
부산 삼광사	2만권	(051)808-7111
일산 원각사	3천권	(0344)913-7744

어려움으로 대출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찰의 교계복지관의 도서관이나 사립·구립도서관 등지에 불서를 정기적으로 기증해 일반인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석천사 진옥스님은 제시했다. 스님은 “불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전달과 교류역시 사찰이 할 수 있는 포교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자 기자

해탈의 길...

설산 지음



선수행·기도법등 초심자 수행안내서

한국불교사회복지회를 통해 활발한 포교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설산스님(백련사)이 알기쉬운 기초교리 입문서 《해탈의 길》을 펴냈다. 스님은 어렵고 복잡한 가르침은 무조건 기피하고 쉽고 단순한 가르침에만 자신을 맡기려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집필동기를 밝혔다. 이 책은 불교란 무엇이며 그 발달과 세계, 근본교리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삼보에 대한 자세와 사원의 구조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올바른 수행생활을 위해 믿음과 선수행, 기도법, 법회, 재(齋)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책은 초심자들에게는 자상한 불교신행 지침서로, 일반인들에게는 보다 쉽게 불교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입문서가 될 것이다. (감로출판사 6천8백원)

화제의 책

실상사

선우도량 역음



실상사의 어제와 오늘 정리...미래 조망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 한 실상사. 《실상사》는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이면서 현재는 종단 최초의 승가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과 백장선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실상사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한 책이다. 선우도량이 펴낸 이 책은 실상사의 현재와 과거, 그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사상과 문화재, 수행자들의 생활 등을 글과 컬러화보로 담았다. 특히 실상사의 오늘에서는 90년 창립된 승가결사 단체 선우도량의 올바른 수행자상 확립을 위한 수련, 현장결사 포교활동과 93년 설립된 실상사 화엄학림의 체계적인 승가교육 현황도 소개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작한 화엄세계관과 생명철서에 맞는 농사 짓기 등 생활속에서 승승이 융합하는 새로운 전통을 뿌리내리고 있는 실상사의 미래도 함께 조망하고 있다. (선우도량 4천원)

화제의 책

여래심지의 요문

박진주 번역



선종 지침서 '능가경' 쉽게 이해하기

“내가 보던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의지하여 실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마대사는 2조 혜가대사에게 《능가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후 혜가와 그 도반들이 항상 이 경전을 마음의 의지처로 삼아 달마대사 이래 초기의 선종을 능가종이라 한다. 여래심지의 요문이며 최상승선의 지침서요, 선종의 뿌리라고 각인되고 있는 《능가경》은 그러나 그 난해함으로 접하기 어려운 경전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여래심지의 요문》은 이러한 난해함을 떨쳐내고자 호남불교교양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능가선연구회를 통해 능가선의 실수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박진주씨가 펴냈다. 《능가경 7권본-대승입능가경》을 역제한 이 책은 묘각(妙覺)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줄 것이다. (능가산방 1만1천원)

“한국문학 원류는 불교의 서정성”

이진오교수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펴내

우리문학의 원류라할 수 있는 불교문학을 조명한 한권의 책이 눈길을 모은다. 부산대 이진오교수(한문학과)가 그동안 발표했던 글들과 새로 쓴 글들을 모아 펴낸 《한국불교문학의 연구》(민족사 펴)가 바로 그것. 이 책은 판조와 해체를 통해 결국은 자아와 대상을 부정하는 서정양식을 선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선시, 불가한시 이해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또 불가한시가 주로 취하는 주요 제재의 내용과 성격을 일별하고, 진리와 삼의 제재라는 측면에서 불가한시의 맥락을 짚고있다. 시대와 문학부면에서는 조선조 불가문학의 역사성, 조선 초기 불찬류문학과 정토사상, 매월당과 청허당문학의 시대성 대비, 조선 후기 불가문학의 사회적 성격변화를 다루었다. 특히 일란이후의 문학갈래를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와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정토사상이 후자에는 선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도의 담파파다(Dhammapada)와 한자문화권의 선시 비교,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원강국사 홍지, 사명당 유정, 조의선사 등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과 그 문화사적 의미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특히 1910년까지의 우리나라 스님들의 불가문집 일람과 간단한 해제를 부록으로 실어 불가문집의 규모와 판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은자 기자

용성선사 대표작 '각해일륜' 가로쓰기 새단장



3.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불교대표로서 거레후에 독립의 불을 당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일생동안 30여종의 경전 번역과 30여종의 저술을 편찬한 대종교회의 선구자인 용성선사의 대표작 《각해일륜(覺海日輪)》이 불광출판사에서 새모습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1930년 초판간행이후 불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해설을 펼쳐 질문과 답을 제시해 불자들에게는 알기쉬운 불교교리문답서로, 수행자들에게는 한글로 된 최초의 선서(禪書)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 11쇄간행을 맞아 새롭게 가

로쓰기로 편집하고, 어려운 불교 용어에 일일이 각주를 달고 쉽게 풀이해 한글세대 불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부처와 중생', '유심의 도리', '수심정론', '육조단경'으로 나뉘어 잔잔하게 깨달음의 세계를 쉽고 자상하게 펼치고 있는 이 책은 용성선사가 직접 수행하고 체득한 내용들이 구어체로 서술, 마치 선사와 독자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법회와 설법 9월호

청소년 포교특집 다뤄

조계종 포교원이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9월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특집으로 '청소년 포교의 어제와 오늘'을 실었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간 개최된 제2회 청소년 연합캠프 현장담을 화보와 참가기가 실려있다. '파리미타 캠프와 청소년 포교', '걸스카우트 종교활동과 불교청소년포교' 등 캠프를 통한 청소년 포교의 현주소와 문제점이 지적돼 있다. 이외에도 포교자료로서 대만 불광사 주무운영도 소개했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2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 환	시공사
3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 시 화	열림원
4	인연(작은책 3)	서 정 주	민족사
5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종은날
6	밥그릇이나 씻어라	이 은 문	자각나무
7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유 흥 준	창작비평사
8	히말리아의 수행자들	해 진	불광
9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림
10	살아있는 법살아있는 그리스도	탁 낙 한	한민

구입문의:(02)737-0695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효능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하여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효능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하여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가격 : 정가 50만원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 김 창 수)

如來健康院 合掌
 電話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보아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공재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지 개발된 천연물질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로 평가받은 '알파 토코페롤'보다도 산화억제능력이 15~20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류수호 박사는 이 세사미놀성분으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있는 율로와 알약 등의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으며, 내년 말쯤으로 노화방지제와 암예방 의약품, 피부노화억제용 화장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6월 1997년 2월 3일 식품뉴스
감식초음료 급성장세

